



오병이어의 기적
카를리 라파엘로
(Carli Raffaello, 1466-1524)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열왕기 하 4,42-44

화답송



(후렴) 주님,당신손을 펼치시 - 어 저희를은혜로 채워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에페소 4,1-6

복음환호송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음 | 요한 6,1-15

성가 | 입당성가 [1] 1,2

예물준비 [221]

영성체 [496]

파견 [400]1,2,3

미사봉헌

| 연미사 | 봉헌 |
|---------------------|-----------------------------------|
| 초차영 마리아 원근자 체칠리아 | 이승민 베로니카외 유족일동 방상욱베드로, 이하나체칠리아 |
| 생미사 | 봉헌 |
| 2024 7/27~ 28 성령대회 | 익명 |
| 허인선 살로메 | 조귀숙 |
| 김기례 레지나 건강 | 유경자데레사 |
| 이영애 레지나 가족 | 익명 |
|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명축일 | 장민우레아, 이태주레오 |
|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명축일 | 이지훈 아녜스 |
|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명축일 | 고은경 모니카 |
| 장해라 마리스텔라 생일축하 | 이지훈 아녜스 |
| 김도윤 | 유리타 |
| 유경숙 릿다 | 김래현 마리아 |
| 2024맨하탄성당청년여름캠프 | 2024청년회 임원진 |
| 진달래 아가다 영육건강 | 대모 |
| 유희순 그레이스 건강회복 | 성소후원회 |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 | 성찬봉사 | 복사 |
|--------|-----|-----|-----|------|------|------------|
| 7월 28일 | 배수아 | 김규현 | 이경자 | 이경자 | 민덕미 | 최사도요한 한데레사 |
| 8월 4일 | 장혜윤 | 강호영 | 민덕미 | 민덕미 | 유정옥 |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 미사 |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 세례 |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
|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

전신자 목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07,050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2024 맨하탄 성당 청년 여름캠프



일시: 8/23(금)~8/25(일)
장소: Bloomingburg, NY12721
참가비: \$200 (레귤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와
바비큐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4년 10/12(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 주일 오전 11시/교육관 3A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성당에서 일할 직원모집

미국본당 수도원장님 요청으로 성당에서 일할 직원 구합니다.
영어 가능자, 물건 운반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주 30시간
근무. 미국본당 수도원장 신부님과 면담후 결정됩니다.
신청: 김 가롤로 신부님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 안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시다.
소매없는 옷, 슬리퍼에 맨발, 심한노출은 삼가바랍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공지사항: 축제의 복장으로 가장 품위있고
아름답고, 좋은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미사 참례한다.

▶주님과 함께 가족여행 떠나기(방법& 제안)

- 1.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
-가족이 모여 원하는 여행지나 함께 하고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구성원의 바람을 모아 여행 목적, 장소를 함께 정할수 있다.
- 2. 여행지로 출발할 때**
-주모경이나 짧은 자유기도로 하느님께 여행의 기대를
봉헌하고, 안전을 위해 기도바친다.
-각자가 이번 여행의 기대를 말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도록
서로 돕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
- 3. 여행 중에**
-여행지 부근 성당/성지에 방문하여 미사 참례하거나
성체조배 드리는 기회를 갖는다.
-여행 마지막 날 밤에는 맛있는 음식, 분위기에 좀더 특별한
나눔의 기회를 갖는다. 여행중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 해도
되고, 가족 간 미처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는것도
좋다. 나눔후 주님께 감사기도를 각자 드리면 가족의 삶에 늘
동반하고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 4.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이번 여행통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눈다. -이번 여행의 추억을 함께 만든 서로에게 돌아가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 모든 시간을 마련해주신 주님께 마침
감사기도를 바친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사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
 네딕트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맥 주

주(主)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일상 안에서의
교회문화



가난한 이들과 맥주를 나누고자 한 파울라 수도자의 모습이 그려진 파울라(Paulaner), 살바토르(Salvator)는 독일어로 구세주라는 뜻

“물은 위험하다. 맥주는 안전하다!
인간의 땀과 신의 사랑, 맥주가 세상에 왔도다!”

6세기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오염된 물 대신 맥주를 마시라고 호소하며 민중들의 생명을 구한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맥주로 사람들을 구한 그는 훗날 프랑스 메츠 교구의 주교가 된 아르놀포 성인(축일 7월 18일)입니다.

그레고리오 1세 교황 때는 영국으로 파견된 수도자들이 척박한 기후 탓에 포도 재배가 어려워 포도주 대신 맥주를 빚어 성찬례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서는 수도자들이 맥주의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다가 홉을 발견하였고 이후 1050년경 수도원에 양조장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맥주의 역사는 기원전부터 이어 오지만 오늘날 마시는 맥주는 중세 수도원 덕분입니다. 기도와 육체노동으로 생활하던 수도자들은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평소보다도 엄격한 금식까지 지켜야 했기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원료로 빵과 같이 효모를 사용해 만들어 열량이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액체 빵(Liquid bread)'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맥주가 식사 대용으로 허용되면서 수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은총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15세기 베네딕토 수도회에서는 하면발효 방식의 '라지'맥주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양조된 맥주는 순례객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생명수와 같았으며 수도원의 생존을 위한 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도회는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맥주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 맥주회사들이 수도원 맥주 양조 자격을 얻어 생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맥주들입니다.

맥주를 마실 때마다 질병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사순을 지혜롭게 보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맥주를 나누려고 했던 수도자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